



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6. 3. 23.(월)				
담당 부서	유물팀	책임자	팀 장	김남희	(031-324-0781)
	유물팀	담당자	선 임	최범석	(031-324-0783)

160년 전 석파정에 놓였던 양부일구, 문화유산이 되다

-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양부일구,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

-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은 소장 유물인 ‘양부일구(仰釜日晷)’가 3월 20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은 해당 유물이 지닌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 양부일구는 세종대왕 시기 처음 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시계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 제작본은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지만, 조선 후기 제작된 약 10여 점이 남아 있으며, 이 중 5점은 이미 국가 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립농업박물관의 양부일구는 기본 구조는 전통 양식을 따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닌 유물이다.
- 절기를 알 수 있는 동지선 눈금 표시가 단순화되어 있고, Y자 형태의 받침대와 금속 합금 비율 등에서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 대부분의 양부일구는 ‘열십자(十)’ 모양의 받침 위에 꾸며진 다리를 설치한 형태지만, 박물관 소장품은 Y자형 삼족 구조를 갖고 있어 희귀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이 유물은 흥선대원군이 사용하던 별장 ‘석파정(石坡亭)’과 직접 연결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 후기 화가 이한철이 그린 ‘석파정도(石坡亭圖)’에는 양부일구가 놓여 있는 석대(石臺)가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석파정에 남아 있는 석대의 홈과 금속 부재가 박물관 소장 양부일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이 유물이 과거 석파정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석파정도(石坡亭圖)는 조선 후기 화가 이한철(李漢喆: 1808~?)이 1860년 경 그린 8폭 병풍 형식의 그림이다. 서울특별시 부암동에 있는 별서(別墅) 정자 석파정의 경관과 건축을 묘사하고 있다.

□ 국립농업박물관의 양부일구는 은입사 공예 기법이 정교하게 활용된 예술적 가치 높은 작품이기도 하다. 시각·절기선 등은 선상감(線象嵌) 기법으로, 시간·방위·절기 등 문자는 면상감(面象嵌) 기법으로 새겨져 있어 조선 후기 금속 공예기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 은입사(銀入絲)는 유기, 청동 제품 표면에 음각으로 홈을 판 후 은실을 채워 문양을 완성하는 공예 기법으로 선상감은 가는 선을, 면상감은 넓은 면을 메우는 방식이다.

□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지정이 우리 농업과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들에 대해 문화유산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부일구 사진



석파정 석대 사진



석파정도(石坡亭圖)